

“광주·전남 위해 전국체전 뚝다”

인도네시아 AG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출전 대회 연패·다관왕·한국신기록 작성 등 기대



“광주·전남 명예를 걸고 뚝다.” 20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한 광주·전남 소속 지도자와 선수들이 지역의 명예를 걸고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 대거 출전한다. 특히 출전선수 대부분은 대회 연패와 한국신기록 도전, 다관왕 등을 목표로 하고 있어 광주·전남 성적과 전국체전 흥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육상 남자 단거리를 대표하는 김국영(광주시청)은 이번 전국체전 남자 육상에서 100m, 200m, 400m 계주, 1,600m 계주까지 4종목에 출전한다. 이번 대회에서 자신이 보유한 100m 한국기록(10초07)을 깨는 것도 관심사다. 김국영은 지난 7일 익산에 도착해 적응 훈련에 나섰다.

아시안게임 여자 100m 허들에서 한국 육상에 무려 8년 만에 금메달을 선사한 정혜림(광주시청)도 출전해 ‘금빛 세리머니’ 재현에 나선다. 한국에 아시안게임 마지막 금메달을 선사한 근대5종 전운태(광주시청)도 출전해 전국체전 금메달에 도전한다.

멀리뛰기와 세단뛰기에 출전하는 김덕현(광주시청)은 각각 대회 3연패와 7연패에 도전한다. 세단뛰기 배찬미

(광주시청)도 대회 6연패를 위해 출전한다.

지난해 전국체전에 대회 3관왕에 오른 평영 200m의 백수연(광주시체육회)는 대회 4연패와 평영 100m 한국기록에 도전한다. 핀수영의 윤아현(광주시체육회) 표면 400m에 출전, 금빛 물살을 가른다.

양궁의 최민선(광주시청), 궁도(광주시체육회) 단체전 등도 금메달 획득을 목표로 대회에 나선다.

20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 38명도 전남을 위해 나선다.

양궁 이은경(순천시청), 불링 최복음·김현미(곡성군청), 카누 조민지(전남도청), 정구 김동훈(순천시청) 등 금메달리스트 5명이 출전한다.

유도 박다솔(순천시청), 요트 채봉진·김동욱(이상 여수시청), 김준홍(KB국민은행), 역도 문유라(보성군청), 펜싱 박경두(해남군청), 럭비 김광민·김남욱·김성수·김정민·김현수·한건규·황인조(이상 한국전력) 등이 출전해 메달 획득 및 다득점을 노리고 있다.

특히 20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정구남자부에서 단체전 금메달, 개인전 동메달의 주인공인 김동훈은 ‘전국체전 개인단식 4연패’의 위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전운태



김덕현



이은경



문유라



김국영

패에 나서며, 핀수영 김보경(전남체육회)은 여자일반부 표면200m에서 한국 기록에 도전한다. ‘역도 형제’인 고홍고 신비·신록은 각각 체급 3관왕씩, 총 6개의 금메달을 싹쓸이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황애란 기자

인도네시아 장애인AG 사격 이지석 ‘금’ 광주시청 탁구 김성욱 은메달 획득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한 이지석(광주시청 장애인사격팀)이 사격에서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지석은 9일(한국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라라 봉 카르노세나안 사격장에서 열린 사격 혼성 개인 R9(50m, 화약소총 복사) 경기에서 총 618.7점을 따내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지석은 예선전부터 압도적인 실력과 뛰어난 집중력을 발휘, 줄곧 1위를 지켰다.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은메달리스트 양인 홍시안(중국)에게 9.3점 차로 이겨며 대한민국 사격팀에게 첫 번째 금메달을 안겼다.

이지석은 “보조요원으로 동반 출전한 아내에게 고맙다”며 “혼성 개인 R4(10m, 공기소총 입사)와 혼성 개인 R5(10m, 공기소총 복사)에서도 반드시 메달을 획득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또 여자 탁구 개인 TT7(지체, 스텐딩)에 결승에 진출한 김성욱(광주시청 장애인탁구팀)은 강호 중국의 왕 루이에게 1-3로 패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황애란 기자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한 이지석이 사격 혼성 개인 R9(50m, 화약소총 복사) 경기에서 총 618.7점을 따내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KIA-롯데 광주서 ‘빅뱅’

산술적 가능성은 KIA...분위기는 롯데가 앞서



5위 KIA와 6위 롯데 자이언츠는 딱 한 장 남은 가을야구 티켓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9일 사직구장에서 펼쳐진 두 팀의 대결에서 롯데가 KIA에 11-10으로 연장 끝내기 승리를 따냈고, 이제 두 팀의 승차는 사라졌다.

실책과 실투가 난무하는 경기였지만, 와일드카드 제도가 없었다면 치열하게 싸울 이유가 없는 두 팀이라 이처럼 흥미진진하게 흘러가진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 정규시즌 4경기를 남겨둔 KIA는 68승 72패로 승률 0.486, 잔여 6경기인 롯데는 66승 70패 2무 승률 0.485다. 롯데가 10일 시작에서 kt wiz와 더블헤더를 앞두고 있어 아직은 KIA가 산술적으로 유리하다.

KIA가 남은 4경기에서 2승 2패를 거둔다면, 롯데는 적어도 3승 1무 2패 혹은 4승 2패를 해야 승률에서 앞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두 팀의 순위는 11일부터 13일까지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3연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기세는 롯데가 앞선다. 최근 17경기에서 14승 3패 승률 0.824로 뒤늦게 발동이 걸린 롯데는 8위로 뒤쳐져있다가 KIA를 턱밀까지 추격하는 데 성공했다.

KIA 역시 같은 기간 10승 9패로 성적이 나쁘지 않지만, 10월 들어 치른 7경기에서 2승 5패로 부진해 롯데에 빌미를 줬다. 게다가 롯데는 8승 5패로 상대전적에서도 앞선다.

두 팀의 3연전 선발 로테이션은 미정이다. 롯데는 10일 더블헤더 2차전 선발 투수에 따라 KIA와 3연전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3연전 첫날인 11일 에이스 브룩스 레일리(12일)와 노경은(12일)과 김원중(13일)이 차례로 출격하는 것이다.

에이스양현종이 옆구리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한 KIA는 등판일을 하루씩 앞당겨 11일 핵터 노에서, 12일 임창용이 출전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마땅한 선발 요원이 없는 13일이다. 대체 선발을 긴급 투입하거나 올해 메이저리그에서 유행한 불펜 투수의 선발 등판인 ‘오픈’ 전략이 나올 수 있다.

이 방법은 핵터와 임창용의 휴식일이 줄어들다는 약점이 있다. 3연전 첫날인 11일 경기부터 ‘벌떼 작전’을 벌이는 모험 수를 던질 수도 있다.

두 팀의 3연전이 끝나면 이제 남은 건 14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와 두산 베어스의 맞대결이다.

문명의 3연전을 앞둔 광주에는 벌써 전운이 감돈다. /연합뉴스

KIA, 13일 홈 최종전 팬 감사 행사

2019 신인 11명 인사·부모님과 시구·시포

KIA타이거즈는 오는 13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롯데전에서 2018시즌 홈 최종전을 맞아 팬 감사 행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올 시즌 변함 없는 사랑으로 KIA타이거즈를 응원해 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동시에 내년 시즌 더 좋은 모습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2019년 신인 선수들이 팬들과 첫 상견례를 한다. KIA는 신인 선수들과 부모를 초청해 시구·시포 행사를 열 계획이다. 2019년 신인

부모들이 시구자로 나서고, 신인 선수들은 부모님의 공을 받는 시포자로 나선 예정이다.

가수로 데뷔한 KIA타이거즈 응원단 차이리더 김광음씨의 특별 공연과 응원단의 감사 공연도 펼쳐진다.

경기 도중에는 올 시즌을 돌아보는 영상이 상영되고, 팬과 함께 하는 플래시 응원으로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를 수놓을 예정이다.

경기가 끝난 뒤 선수단 전체가 그라운드로 나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황애란 기자

‘완전체’ 벤투호, 우루과이전 담금질

칠레전 영상 분석...훈련서는 빌드업 개선

파울루 벤투(포르투갈) 감독의 성공적인 데뷔전 이후 ‘2기 벤투호’로 뭉친 축구 국가대표팀이 우루과이, 파나마 평가전을 위한 본격적인 대비에 들어갔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9일 오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이틀째 소집 훈련을 진행했다.

소속팀 경기 일정으로 소집 훈련을 시작한 전남엔 참가하지 못했던 정우영(알사드)과 남태희(알두하일)까지 합류해 이날은 태극전사 25명이 모두 모습을 드러냈다.

전날 밤 도착한 정우영과 남태희는 그라운드 주변을 천천히 도는 등 회복에 집중했고, 나머지 선수들은 정상 훈련 프로그램을 소화했다.

초반 일부만 다양한 형태로 세워진 풀 사이클을 뛰며 몸을 풀었고, 골장 기술과 전술을 다듬는 훈련으로 이어졌다.

간략한 몸풀기 이후엔 팀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 경기장을 절반씩 활용했다. 골키퍼를 기점으로 하프라인 부근까지 패스를 이어가는 연습이 진행됐다. 공격수들은 볼을 잡는 선수에게 따라붙어 압박했다.

벤투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기 시작할 때부터 화두가 된 빌드업 전개를 더 빠르고 매끄럽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보인다. 이후 훈련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날 훈련에 앞서 오전엔 지난달 11일 치른 칠레와의 평가전 영상을 보며 보완해야 할 점을 위주로 분석도 이뤄졌다. 당시 대표팀은 강호 칠레와 0-0으로 비겼다.

정우영은 “영상을 보고 수비와 공격으로 파트를 나눠 개선할 점을 얘기했다”면서 “빌드업할 때 세밀함과 강도 등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칠레전의 압박 강도나 경기 속도는 월드컵에서 경험할 만한 수준이었다. 우루과이는 더 강할 것”이라며 “홈에서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고자 분석과 마음가짐 등 준비를 많이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표팀은 10일에도 오후 NFC에서 훈련을 이어간다. 9일과는 달리 전체 과정이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9일 입국한 우루과이 대표팀은 10일 오전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몸풀기에 나선다. /연합뉴스



9일 오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열린 축구대표팀 훈련에서 조현우 골키퍼가 슈트를 입고 있다. /연합뉴스

2018-2019 프로농구 13일 개막

‘라건아’ 품은 현대모비스 우승 후보 급부상

2018-2019시즌 프로농구가 13일 서울 SK와 원주 DB의 공식 개막전을 시작으로 6개월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2018-2019시즌 프로농구 정규리그는 2019년 3월 19일까지 5개월 동안 이어지고 이후 상위 6개팀이 나서는 플레이오프(PO)에 이어 챔피언결정전이 내년 4월까지 치러진다.

정규리그는 10개 팀이 팀당 54경기

씩 총 270경기가 열리는 가운데 공식 개막전은 지난해 챔피언결정전에서 맞붙은 ‘챔피언’ SK와 DB의 대결로 펼쳐진다.

무엇보다 이번 시즌 프로농구는 지난 시즌 정규리그 4위를 차지했다가 6강 PO에서 무너진 현대모비스의 강세가 점쳐진다.

바로 한국으로 귀환한 ‘라건아’ 리

카르도 라틀리프(199.2cm) 덕분이다. 울산현대모비스는 전신인 부산기아 엔터프라이즈 시절을 포함해 역대 챔피언결정전에서 6차례(1997년·2007년·2010년·2013년·2014년·2015년)나 우승한 전통의 강호지만 최근 시즌 동안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했다. 특히 지난 시즌에는 6강 PO 탈락의 고배를 마시기도 했다.

현대모비스는 정규리그를 앞두고 드래프트를 통해 2012년부터 세 시즌 동안 팀에 활약했던 라틀리프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다.

라틀리프를 품은 현대모비스는 새년

쇼터(185.9cm)와 D.J 존슨(195.8cm) 등 2명의 외국인 선수에 외곽슛이 좋은 문태종과 오용준을 영입, 화려한 라인업을 완성하며 단숨에 우승후보로 떠올랐다.

하승진, 전태풍, 이정현 등 스타급 선수들이 견재하고 지난 시즌 인천 전자랜드에서 평균 23.2득점을 기록한 겸직된 외국인 선수 브랜든 브라운(194cm)과 미국프로농구(NBA) 무대에서 뛰었던 마퀴스 티그(185.4cm)를 영입한 전주 KCC도 현대모비스를 위협할 전력으로 손꼽힌다. /연합뉴스